



고려해운

최고운송부문업체로 선정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이 최근 현대자동차 인디아에 의해 최고운송부문업체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인도(Hyundai Motors India)는 매년 260여개의 Vendors 중에 분야별 최고의 회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6개사가 선정됐으며, 그 중에서 해운/통관/육상운송 부문에서 고려해운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는 종합적으로 해상운송, 통관, 육상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에 대한 시상으로 각국의 많은 경쟁사를 물리치고 고려해운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인도의 조립라인을 현재 연산 30만대에서 향후 60만대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울산)/인도간의 운송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될 예정으로 이는 지금까지 투입된 발전회사 유연탄 운항 선박중 최대 규모이다.

대한해운은 동선박으로 국내 처음으로 외국 해운사에도 개방된 한국남부발전의 장기 운송계약 입찰에서 세계 2위 해운사인 NYK(일본우선해운)을 제치고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내 최대 전용선사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이진방 사장은 이날 명명식 기념행사에서 "탁월한 기술력의 총화로 훌륭한 선박건조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조선소측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 선박이 앞으로 국가기간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 초일류 전용선사로서의 대한해운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케이프사이즈 선박 세 척의 인수로 총 29척 331만dwt의 선복량을 보유하게 된 대한해운(주)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유조선사업진출 및 선대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 유조선 3척, 2009년 유조선 1척, 벌크선 1척 등 총 5척의 선박인도가 예정돼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인 선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해운

17만800DWT급 신조선 확보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은 7월2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7만800DWT급 신조선박의 명명식을 거행했다. 이 선박은 7월26일 인도받았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진방 사장을 비롯한 회사측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김상갑 사장 및 임직원 그리고 대우조선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조 선박은 한국남부발전 김상갑 사장의 부인 박숙희 여사에 의해 'ADONIS(아도니스)'로 명명됐으며, 2004년에 체결한 한국남부발전과의 발전용 석탄 장기 해송운송계약에 따라 앞으로 18년간 약 2,700만톤의 발전용 유연탄 수송에 투



동남아해운

임원 인사이동

동남아해운(회장 임병석)은 8월1일부로 임원들에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올해 3월 전무로 승진하면서 동남아해운 컨테이너영업을 담당했던 최우락 전무는 황해훼리, 손삼목 상무는 C&그룹 기획부문으로 각각 발령됐다.

이에 따라 동남아해운 영업부문은 남극영 이사, 마켓팅은 정철권 이사, 기획/전산부문은 정성환 이사가 각각 담당하게됐다

한편, 이원태(지역영업본부), 최성근(세양선박 파견), 신철범(진도 파견), 엄정일이사대우는 사직했다.

(주)봉신

중고 케미컬탱커 1척 도입

선우해운을 흡수합병한 (주)봉신(대표 정인현)이 이중선체 탱커선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이중선체 선박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봉신은 94억5000만원을 투입해 SUTRAJAYA SHIPPING사로부터 중고 케미컬 탱커(SUTRA SATU호) 1척을 도입했다. SUTRA SATU호는 8450DWT급 케미컬탱커선으로 지난 7월25일부로 인수했다. 이로써 봉신이 보유하고 있는 케미컬탱커는 총 4척으로 늘어났다.

한편, (주)봉신은 지난 5월17일 63빌딩에서 개최한 기업 설명회에서 '화학제품부문 국내 1위 탱커선사'로 성장하기 위해 선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에 5600DWT 탱커선 2척을 신조함은 물론 3~5척을 용선해 탱커선대를 확충하고 선우상선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운영 선박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 케미컬탱커선 도입 내용>

△취득금액(원): 94억 5000만원 △자산총액(원): 692억8260만2866원 △자산총액대비(%): 13.64 △거래상대: SUTRAJAYA SHIPPING SND.BHD △취득목적: Double Hull Tanker 선박의 수요급증에 따른 선박제원 확보를 통한 수익증대 △취득일자: 2006년 7월25일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6년 7월12일

(주)C&진도

2,700여만달러 규모 컨테이너 수주

(주)C&진도(대표 임성주)가 계열사인 (주)C&컨리를 통해 영국의 컨테이너리스사와 2,700여만달러 규모의 컨테이너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C&진도는 컨테이너 리스사인 계열사 C&컨리를 통해 영국의 신생 컨테이너 리스사인 'WCL'(WIND CONTAINER LEASING)사와 20피트,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등 총 1만 5,000TEU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영국의 WCL사는 올 6월에 설립된 영국 국적의 신생 컨테이너 리스사로, 매년 5만TEU의 컨테이너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진도는 이번 계약 성공으로 향후 지속적인 추가 공급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체결된 컨테이너 생산은 올 9월부터 중국에 위치한 생산 현지법인인 광주우진도, 다렌진도, 상하이진도유한공사 등 3개 현지법인에

서 담당하게 되며 금년 12월까지 납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C&진도는 최근 한진해운, WCL 및 신규거래선과의 수주계약을 잇따라 체결, 연말까지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이미 확보함에 따라 추가물량에 대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중국 현지법인의 생산라인 증설을 진행중에있다.

중국 광저우진도유한공사는 오는 9월말까지 특수컨테이너 생산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45피트와 커튼사이드 컨테이너 등 유럽시장을 겨냥한 특수컨테이너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다렌진도유한공사도 특수컨테이너 라인 신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일본 시장을 겨냥한 특수컨테이너와 스틸맨션, 철구조물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대형거래선 2곳과 안정적인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생산개시 전부터 관련 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 시장은 최근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 컨테이너 공급가격은 한때 20피트 기준으로 1,500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2,100달러대를 상회할 정도로 회복하고 있다.

선우상선

사업다각화에 주력

선우상선(대표 정대균)이 케이프사이즈벌커를 확보, 대형 벌커선분야에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선우해운(봉신과 합병)과 선우상선은 2002년 케미컬탱커사업에 진출 벌커와 액체화물로 포토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우상선이 구입하는 선박

은 91년 건조된 15만DWT급으로 구입가는 약 3,000만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매입 직후 4~5년 기간으로 정기용선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선료도 적정 수준에서 결정돼 리스크가 큰 대형선분야에 진출했음에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SK해운

4척의 신조선 발주기로

SK해운(대표 이정화)은 105K LR2 Product Tanker 2척과 31만 8,000DWT급 D/H VLCC 2척 등 4척의 신조선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프로덕트선의 투자금액은 2척 합계 1,238억 5,100만원, 납기는 2009년 상반기중이다. VLCC 2척은 4,989만원이며, 납기는 2009년 하반기까지다

STX팬오션

케이프사이즈 용선회사 설립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지난 6월14일 100% 자회사인 홍콩법인 STX Pan Ocean(Hong Kong)과 ETA Star Holdings Ltd가 조인트벤처회사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200만달러로 각각 100만달러씩 출자했으며, 아라비아궤프와 인도지역에서의 케이프 사이즈 용선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동사는 5월 첫번째 합작법인을 중국 칭다오(靑島)에 설립, 중국내 물류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데 이어 오는 9월 포워딩업무를 담당하는 두번째 중국내 물류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오는 9월18일 100%출자하는 '칭다오 STX인터내셔널로직스틱스'를 설립해 중국내 포워더 및 3PL업무를 진행할 계획인데 자본금은 800만 위엔(1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TX팬오션은 지난 4월 중국 텐진커윈유한공사(天津克運有限公司)가 50:50의 비율로 공동 투자한 'Qingdao STX-Keyun Logistics'를 설립한 바 있다. 이 법인은 총 자본금 100만달러 규모로, 칭다오 신히안해지역 컨테이너 야드(CY.Container Yard) 1만 2,800여평(42,000평방미터)을 8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CY운영과 선박대리점업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STX팬오션은 지속적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칭다오항, 상하이(上海)·텐진(天津)·닝보(寧波) 등의 주요 항만에 물류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금상선

평택-일본 직항로 개설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7월24일 평택-오사카-고베-나고야-요카이치항로에 '시노코 마산호'(3,597톤급·272TEU)를 투입, 주 1항차 노선의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이 항로는 당초 평택-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던 항로였으나, 경인지역 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을 기항하지 않고 인천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항로를 변경하게 됐다.

장금상선과 인천항만공사는 신규항로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 날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첫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주)한진

중소기업 대상 물류서비스 제공

(주)한진(대표 이원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수출규모 및 물류비용 등으로 현지 물류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보관, 운송, 포장, 재고관리, 통관 등 전 물류단계 걸친 Global 종합물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인증 종합물류기업인 (주)한진의 전문 물류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시 상업송장 발행, 수입관세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 받는다.

△지원대상 :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지원서비스 지역 : [현재 서비스지역] 중국 상하이/칭다오(2006년 8월말 한), 미국 LA [향후 서비스확대지역] 2006년 :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베이징, 광저우,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호치민 2007년 : 상파울루, 뉴델리, 모스크바

△지원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업체 할인 요율 적용(자세한 서비스 단가는 이메일로 개별문의 요망), 물류서비스업체와의 계약 및 물류비용 검토 지원, 운송 및 재고관리 지원, 제품납기 확인 및 반품처리 지원, 현지내 바이어와의 업무 연락 지원, 수출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현지 출장시 비즈니스 공간 제공

△가입비 및 연회비는 없음

△신청 및 접수 : LA, 상하이, 칭다오 신청 가능(기타 지역 상담 요망)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지)부, 마케팅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신청서류 (신청서 다운받기)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이완희 대리 (☎02-769-6954), (주)한진국제사업부 이진광 과장 (☎02-728-5908~9, jklee@hanjin.co.kr)

한진해운

아시아-남미 서비스 개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대만의 에버그린사와 상호 선복교환 방식으로 새로운 아시아-남미 서비스를 개시했다.

NSX(New South America Asia Express)로 명명된 이 정기 노선은, 그 동안 일본 MOL의 선복을 임차하여 아시아-중남미 구간 서비스를 제공하던 FAS(Far East Asia-Asia-South America) 노선의 대체 성격을 띄고 있다.

NSX 노선은, 기존 기항지인 브라질 파라나구아와 리오데자네이로 대신 중국 닝보와 대만 카오슝을 기항하며, 전체 기항 횟수 축소와 중복기항 배제로 아시아-남미간 운송 시간 단축은 물론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진해운은 7월30일부터 상하이를 시작으로, 닝보, 카오슝, 홍콩, 옌티엔(선전), 싱가포르를 거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브라질 산토스를 연결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미지역의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서비스 노선 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NSX(New South America Asia Express)
: 상하이-닝보-카오슝-홍콩-옌티엔(선전)-싱

가포르-부에노스아이레스-몬테비데오-산토스-싱가포르-홍콩-카오슝-상하이

△ FAS(Far East Asia-Asia-South America) : 부산-상하이-선전-홍콩-싱가포르-산토스-부에노스아이레스-몬테비데오-파라나구아-산토스-리오데자네이로-싱가포르-홍콩-부산

현대상선

아시아-미주동안 서비스 강화

현대상선(hmm21.com, 대표 노정익)이 세계적인 선사들과 협력해 '아시아-미주 동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속한 제휴그룹인 TNWA(현대상선, MOL, APL 소속)는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Grand Alliance(Hapag-Lloyd, NYK, OOCL 소속)와 함께 '아시아-미주 동안' 간에 신규항로를 개설키로 했다.

8월22일부터 운항을 개시하는 이 항로에는 각 그룹당 3,500TEU급 선박을 4척씩 투입, 총 8척의 선박으로 선복교환 방식의 제휴를 할 예정이다.

신규 항로는 중국의 상하이(Shanghai), 치완(Chiwan), 서커우(Shekou), 홍콩(Hong Kong)과 미국 동안의 노퍽(Norfolk), 서베너(Savannah) 항을 연결하고, 중간에 파나마 만자닐로(Manzanillo)에도 기항한다.

TNWA는 '아시아-구주' 항로에서 지난 3월부터 Grand Alliance 그룹과 처음으로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번 항로 개설을 통해 '아시아-미주' 항로까지 공동운항을 확대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상선은 이번 항로 개설로 '아시아-미주동안' 간에 개설된 기존의 2개 항로에 추가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아시아-미주동안' 간 항로에서 세 번째로 항로를 운영하게 됐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미주동안 항로에서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대상선은 TNWA의 멤버이자 GA 그룹과의 제휴사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선박을 투입해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는 등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아해운

투입선박 교체 및 항로재편

홍아해운(회장 이운재)은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한일항로를 투입선박 교체 및 항로재편 등 대폭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부산-시미즈·센다이·오나하마항로의 투입선을 기존 677TEU급 Nadja호를 653TEU급 Heung-A Jakarta호 교체투입했다. 기항지 등은 변동없다.

또한, 시코쿠·세토우치서비스의 경우 2개루프가운데 이마지·마츠야마·히로시마·미즈시마·와카야마-부산루프의 투입선박을 기존 320TEU급 Global Nubira호에서 166TEU급 Heung-A Pusan호로 변경했다. 동시에 종래 기항지 가운데 와카야마를 이 루프에서는 제외했다.

히로시마·후쿠야마·미즈시마-부산루프도 기존의 204TEU급 Nova호대신 236TEU급 Asian Cygnus로 대체했다.

한신서비스중 오사카·코베·시미즈·토요하

시·코치-부산·울산루프에 대해 투입선을 종래의 653TEU급 Heung-A Jakarta에서 Heung-A Ulsan호로 대체투입하는 한편 시미즈·토요하시·코치 기항을 중단했다.

東海(토카이)·시코쿠 서비스의 경우 한신서비스중 기항중단한 시미즈·토요하시·코치를 커버하기 위해서 320TEU급 Global Nubira호를 투입해 새로운 루프를 신설했다. 이 때문에 이들 3개항 기항요일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사이버로지텍

U-port 업계 Global 위상

해운항만물류 IT전문기업 사이버로지텍(www.cyberlogitec.com, 대표 김종태)이 RFID 선두업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Ministry of Communication)는 RFID 기반 U-Port(Ubiquitous Port)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첫 번째 Showcase로서 Johor Port가 내년 초부터 RFID 항만자동화 시스템 구축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8일 Johor Port관계자들이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사이버로지텍을 방문했고, 한국 항만 환경의 한 발 앞선 신기술 도입 현황 및 이를 위한 정부, 업계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단은 특히 사이버로지텍이 Ubiquitous Port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해양수산물 RFID기반 항만물류 표준화 1차 사업"의 성과물인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자동화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RFID기반 U-port 선진사례로서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갔다.

Johor Port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사이버로지텍이 보유한 RFID 기반시설, Middleware, 터미널 운영시스템(CY_PORT)과의 연계, E-Seal(Electronic Seal), Cargo Tracking System등에 대한 업무 procedure 및 제품을 견학했으며, Johor Port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이버로지텍의 선진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력을 주문했다.

사이버로지텍은 한진해운의 IT 아웃소싱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해운항만물류 IT 컨설팅에서부터 물류 Ubiquitous 사업에 이르기까지 해운항만물류 정보화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IT 전문기업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박희성 위원장 ITF 집행위원에 선출



박희성 위원장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박희성 위원장이 지난 7월30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I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ITF) 제41

차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집행위원은 국제운수노련 총회의 결정사항과 지시를 수행하며 재정과 인사 등 전반적인 국제운수노련의 업무를 지휘하는 지도부로 국제운수노련과 전세계 가맹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사무총장을 포함 총 37명으로 구성되고 총회에서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한국은 미얀

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몽고,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선거지역에 속한다.

박희성 해상노련 위원장은 같은 선거지역에 속한 국가의 철도, 항운, 선원, 도로, 항공 등 가맹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경선 없이 추대형태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는데 이로써 한국은 전임 항운노련의 오문환 위원장에 이어 집행위원을 연임하게 되었고 해상노련으로서는 1998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9차 총회에서 권을용 전 위원장(현 지도위원)이 집행위원으로 피선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집행위원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 총 37명의 선출 집행위원 중 아태지역 출신 위원은 총 9명이다.

이번 총회에서 박희성 위원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한국 노동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뿐 아니라 해운업의 세계적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해외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입지는 물론 대한민국 노사정을 대표하여 세계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막강하여 국제취득조건부나용선(HPBBC)이나 편의치적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이행시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한국과 전 세계 해운정책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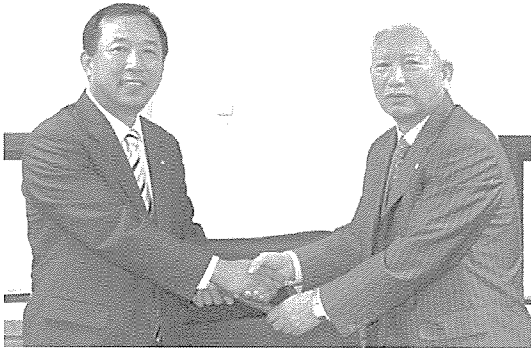
한편 국제운수노련의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이번 제 41차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205개 가맹노조에서 위원장, 실무자, 국제운수노련의 본부 및 지역사무소 직원 약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1일까지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노련,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대한항공노조, 도로공사노조 위원장 및 실무자와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2대 항만위원장 선출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 항만위원회 제2대 위원장에 한준규 황해객화선사협의회회장(56대인훼리 대표이사)이 선출됐다.

인천항만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7월28일 제16차 임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이기상 초대 위원장의 뒤를 이어 제2대 위원장으로 한준규 위원을 선출했다. 한준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항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한준규 위원장은 “어려운 자리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 항만위원장은 특별한 권한이 아닌 인천항의 발전과 항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초대 위원장의 뜻이 이어 받아 1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해양수산부 공보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는 대인훼리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경력에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 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점 등 인천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높이 평가받아 투표 없이 항

만위원들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7월25일자로 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공사측은 “이번 인사는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인천항만공사의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실장급(1급)] △최해섭 命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장 △곽창현 命 경영기획본부 경영전략팀장 △홍경원 命 항만운영본부 운영기획팀장

[부장급(2급)] △이경기 命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팀장(직무대행) △김재동 命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부장 △이범란 命 항만운영본부 운영기획팀 부장 △마문식 命 항만운영본부 항만운영팀 부장

한국선급

기술교류협력 협정 체결

한국선급(회장 이갑숙)과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회장 정연세)은 7월 26일 서울 구로구 한국선급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양 기관간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정회원으로선 선박·기자재검사 및 안전도검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한국선급과 항만하역장비, 강구조물 및 전기설비 등 산업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선급엔지니어링과 상호 기술교류를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인적교류를 통한 화합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한 교육훈련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선박 및 항만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교류 △사업관련 영업정보 교류 △상호 대행 또는

위임 가능한 업무의 교류 △기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상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선급 이갑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공업협회

신임 부회장에 한장섭씨 선임

한국조선공업협회(회장 김정완)는 공석중인 상근 부회장에 한장섭 전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사진)을 선임했다.



한 장 섭 신임 부회장

한국조선공업협회는 6월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한장섭씨를 신임 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한부회

장의 임기는 7월1일부터 3년간이다.

한국조선공업협회 부회장직은 지난 3월 이병호 전 부회장이 가스공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개월가량 공석 상태였다.

신임 한 부회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과장과 산업기술개발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조선공업협회 관계자는 “한부회장이 산업자원부 내에서 폭넓은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을 파악해 해결해 나아가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사고 교육과정 Workshop 개최

부산, 인천해사고등학교 2·1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Workshop이 개최되었다.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개최된 이번 Workshop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여 7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은 지금까지 3학년 때 6개월간 실시되고 있다.

이에 2008년도부터는 해사고등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3학년때는 1년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실습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승선실습 교육기간 확대를 통한 우수 해기 인력 양성으로 졸업과 동시에 해기사 면허를 취득·승선 취업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Workshop은 해사고 학생 승선 인원, 생활지도 교사 승선 및 생활지도 방법, 평가 방법 및 필수과목 이수 문제, 면허 합격 시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관계기관·학계간의 실무팀을 구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2008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Workshop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연수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해기인력 양성과 실습선 운영 효율 제고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한편 Workshop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및 해사고 관계자들은 Workshop에 앞서 해사고등학교 2·1 교육과정에 활용될 해양수산연수원의 상선실습선 한반도호와 한우리호를 견학하였다.



외항해운업계 상반기 경영실적

대한해운

상반기 영업이익 285억원

대한해운주식회사(대표 이진방 /www.korealines.co.kr)는 매출액 5,399억원과 영업이익 285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10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이 약 5% 절상된 것을 고려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285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 감소는 건화물선 시황 하락(전기 대비 약 43% 하락),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더불어 원화 강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이후 건화물선 시황이 재차 상승하여 8월 9일 현재 대표적인 건화물지수인 BDI (Baltic Dry Index)가 3,678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시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해운 2006년 상반기 실적

과목	2006년상반기	2005년상반기	증감
매출액	539,955,468,572	575,123,378,700	-6.1
매출총이익	34,855,729,608	85,372,886,240	-59.2
판매비와관리비	6,314,547,781	5,952,873,092	6.1
영업이익	28,541,181,827	79,420,013,148	-64.1
경상이익	51,782,432,427	93,537,680,806	-44.6
반기순이익	48,107,825,244	89,114,946,692	-46.0

SK해운

상반기 영업이익 443억원

SK해운(대표 이정화)은 2006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79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액은 8,059억원으로 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43억원으로 27% 줄었다. 경상이익은 899억원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해운 2006년 상반기 실적

과목	2006년반기	2005년반기	증감
I. 매출액	805,909,044,789	767,302,696,134	5.0
II. 매출원가	741,491,430,376	687,944,298,148	7.8
III. 매출총이익	64,417,614,413	79,358,397,986	-18.8
IV. 판매비와관리비	20,052,497,278	18,645,663,866	7.5
V. 영업이익	44,365,117,135	60,712,734,120	-26.9
VI. 영업외비용	92,409,079,728	75,920,120,366	21.7
VII. 경상이익	89,961,956,488	58,034,022,188	55.0
X. 반기순이익	79,913,086,141	32,099,662,200	149.0

STX팬오션

상반기 영업이익 4,000만달러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벌커시황하락과 연료유가 급등 등의 원인으로 2006년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TX팬오션이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13억 2,0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5억 1,200만달러에 비해 13% 감소했다.

매출총이익Gross Profit도 2억 900만달러에서 8,700만달러로 58% 감소한 것으로 비롯해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도 80% 하락한 4,000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세전영업이익 EBITDA는 전년동기의 2억 1,600만달러에서 605 감소한 8,500만달러, 순이익도 1억 9,200만달러에서 84% 줄어든 3,100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동사는 그러나 시황이 점차 개선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 실적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TX팬오션 2006년 상반기 실적

Highlights (US\$m)	1Q 2006	2Q 2006	증감	1H 2006	1H 2005	증감
Revenue	648	672	4%	1,320	1,512	-13%
Gross Profit	37	50	35%	87	209	-58%
Operating Profit	30	10	-67%	40	198	-80%
Adjusted Operating Profit*	28	36	29%	64	194	-67%
EBITDA	41	20	-51%	61	216	-72%
Adjusted EBITDA*	39	46	18%	85	212	-60%
Net Profit	26	5	-81%	31	192	-84%
EPS (US\$ Cents)	1.5	0.3		1.8	12.7	-

*Adjusted for unrealised Forward Freight Agreement (FFA) loss of US\$24 million

현대상선

상반기 영업이익 910억원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조3천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910억원으로 62.6% 줄었다고 최근 밝혔다. 또 당기순이익은 1천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감소했다.

현대상선측은 매출액은 축소됐지만 환율변동을 감안해 실제 거래금액인 외화로 환산하면 매출액은 23억3천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실적 악화에 대해 해운운임 하락과 함께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유 부담이 커졌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하지만 영업이익 910억원 은 동종업계에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이는 현대상선이 지난 2~3년 전부터 해운시황의 불황에 대비해 유조선 부문 등 비 컨테이너선 부문을 확충해 균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정의 현대상선 사장은 이날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해운업이 지난 몇년간의 호황기를 지나 조정기에 접어들었지만 현대상선은 지난 호황기에 이미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를 해왔다”면서 “컨테이너선 부문 시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와 내년이 지나면 다시 고속성장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상반기 영업이익 531억원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매출액 2조 9,155억원, 영업이익 531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지속적인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로 미 달러화 기준으로 약 6.2% 증가하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원화 환산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였는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 이상 하락하고 대부분 달러 수입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주목 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유 구매 단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531억원을 시현했다.



<상반기 영업실적>

(단위 : 억원)

	2006년 상반기	2005년 상반기	비 고
매출액	29,155	28,925	0.80%
(USD 기준/백만불)	-3,026	-2,849	(+6.2%)
영업이익	531	2,820	-81.20%
경상이익 (외화환산손익)	1,065 -534	2,624 -160	-59.40%
순이익	948	2,136	-55.60%
컨테이너 수송량	1,598,421TEU	1,359,089TEU	17.60%

한편 경상이익은 원화절상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의 증가 등 영업외 수입의 증가로 영업이익보다 534억원이 많은 1,06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순이익은 톤세제 도입 효과의 지속으로 법인세비용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55.6% 감소한 948억원을 달성했다.

컨테이너 전체 수송량은, 주력노선인 아시아발 미/구주행 노선 수송량이 각각 18.1%와 17.3% 성장한 데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자랑스런 해운인

박종규 KSS해운 고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KSS해운 박종규 고문(전 규제개혁위원장)이 8월2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자 24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실

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에 공이 큰 민간분야 인사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선정되었으며 경제단체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건의 등 규제개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인사를 선정하여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집행기관의 관행 및 행태 개선, 민간분야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 KSS해운 고문 박종규(前 규제개혁위원장)

△국민훈장 목련장 :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원 △녹조근정훈장 : 행정자치부 과장 장만희

△근정포장 : 국무조정실 박구연 서기관, 건설교통부 김명운 서기관, 환경부 김종민 사무관, 서울특별시 오현 사무관 △대통령표창 : 국무조정실 김진남 서기관 등 6명 △국무총리표창 :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서기관 등 11명

